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http://www.fgtv.com> 1958년 5월 18일 창립(설립자 조용기 목사) 통권 제66권 27호

주보

2023. 7. 2.

위임목사 **이영훈**

(Senior Pastor Rev. Younghoon Lee)

부 목 사 **윤광현**(교무) **김호성**(목회신학) **고영용**(개척·기획)

◆ 2023 표어 ◆

오직 사랑으로

◆ 2023 교회목표 ◆

1.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 사랑과 나눔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
3. 새로운 부흥으로 나아가는 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www.fgtv.com



기독교 대한민국의 영혼

여의도순복음교회

YOIDO FULL GOSPEL CHURCH

072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5

15, Gukhoe-daero 76-gil, Yeongdeungpo-gu, Seoul

성찬예배순

2023. 7. 2.

Communion Sunday Worship Service

예배로 부르심 요(Jn.) 4:24 사회자
Invocation President

찬송 8장(통9장) 4절 다같이(일어서서)
Hymn Hymn No. 8 v. 4 All Together(Please Stand)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일어서서)
Confession The Apostles' Creed All Together(Please Stand)

찬송 1부:421장, 2·3·4부:336장, 주일저녁:293장 다같이
Hymn (통210장) (통383장) (통414장) All Together

기도 기도자
Prayer Prayer

성경봉독 사회자
Scripture Reading President

1부 롬(Rom.) 8:1~2 2·3·4부 행(Ac.) 8:4~8
5부 대학청년 행(Ac.) 18:9~10 주일저녁 요(Jn.) 2:1~11

찬양 찬양대
Anthem Choir

설교 설교자
Sermon Preacher

1부 무죄 선언 윤광현 목사
Declaration of No Condemnation Rev. Kwanghyun Yoon

2·3·4부 큰 기쁨이 있더라 이영훈 목사
There Was Great Joy Rev. Younghoon Lee

5부 대학청년 위로하심이 있기에 김남준 목사
Because There Is Comfort Rev. Namjun Kim

주일저녁 결핍에서 충만으로 권성민 목사
From Lack to Fullness Rev. Sungmin Kwon

기도와 결신 설교자
Prayer & Altar-Call Preacher

성찬 229장 다같이
Communion (통281장) All Together

헌금기도 기도자
Offering Prayer

찬송 주기도문(635장) 다같이(일어서서)
Hymn The Lord's Prayer All Together(Please Stand)

축도 설교자
Benediction Preacher

수요일예배순

2023. 7. 5.

Wednesday Worship Service

사 회 / 1부 10시 30분 이상영 목사 2부 14시 조동재 목사 3부 19시 30분
 예배로 부르심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1·2부:400장(통463장) 다같이
 기도 1. 이유세 장로 2. 유준호 장로
 성경봉독 1·2부:시(Ps.) 42:6~11, 3부:삼상(1Sa.) 16:12~13 사회자
 찬양 1. 베데스다 찬양대 2. 시온 찬양대 3. 호산나 찬양대
 설교 인생의 절망 속에서 1. 윤광현 목사 2. (스크린)
 야훼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3. 유성은 목사
 헌금기도 1. 이진봉 안수집사 2. 서도훈 안수집사

금요일성령대망회순

2023. 7. 7.

Friday Night Holy Spirit Prayer Meeting

사 회 / 김태선 목사 20시 30분
 기도 민영목 장로
 성경봉독 롬(Rom.) 8:26~30 사회자
 찬양 겐세마네 찬양대
 설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윤광현 목사

토요일예배순

2023. 7. 8.

Saturday Worship Service

사 회 / 신동석 목사 10시 30분
 예배로 부르심 요(Jn.) 4:24 사회자
 찬송 205장(통236장) 다같이
 기도 이원일 장로
 성경봉독 히(Heb.) 4:12~13 사회자
 찬양 가브리엘 찬양대
 설교 히브리서(18):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김호성 목사
 헌금기도 유경태 안수집사

금주의 찬양

Choir Anthem

구 분	찬양대명	지휘자	찬 양	구 분	찬양대명	지휘자	찬 양
주일1부	베 다 니	강 내 우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	수 요 1부	베 데 스 다	신 동 열	그가
주일2부	베 들 레 현	윤 의 중	송전가	수 요 2부	시 온	조 현 호	사랑의 주 예수
주일3부	예 루 살 렌	민 인 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네	수 요 3부	호 산 나	정 철 수	주는 나의 목자
주일4부	나 사 렛	김 호 식	나를 바꾼 주의 십자가	금요성령대망회	겐 세 마 네	이 건 수	예수를 믿는 마음
5부 대학청년	원 마 누 엘	이 수 범	십자가의 길	토요일예배	가 브 리 엘	이 용 중	내구주를 더욱 사랑
주일저녁	에 벤 에 셀	이 철 행	그 사랑				

오늘의 말씀

“그 흠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바음으로 그가 하는...” (이하줄임)
 (행 8:4~8)

사 회

1부 07:00 한사무예A 목사
 2부 09:00 권 병 수 목사
 3부 11:00 김 형 진 목사
 4부 13:00 변 원 중 목사
 5부 대학청년 14:40 김 민 구 목사
 주일저녁 17:00 이 인 천 목사

대표기도

1부 정 해 영 장로
 2부 이 강 우 장로
 3부 장 대 석 장로
 4부 김 두 식 장로
 5부 대학청년 김 건 수 장로
 주일저녁 이 중 만 장로

헌금기도

1부 김 영 봉 안수집사
 2부 백 형 주 안수집사
 3부 신 동 수 안수집사
 4부 이 성 문 안수집사
 5부 대학청년 김 예 진 성 도
 주일저녁 김 홍 균 안수집사

큰 기쁨이 있더라

(There Was Great Joy)

행(Ac.) 8:4~8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1.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 (Those who had been scattered preached the gospel)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러자 유대교 지도자들의 큰 핍박이 시작되었고, 예루살렘 성도들은 인근 각처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핍박이 다가오게 된 이유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사명을 잊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 큰 핍박이 다가오자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힘써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복음의 소식이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지상명령입니다. 우리도 예루살렘 성도와 같이 두루 다니며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2. 사마리아 성에 내려간 빌립 (Philip who went down to a city in Samaria)

스테반이 순교하자 그 뒤를 이어 빌립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빌립이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모든 육체적, 영적, 심적인 질병에서 놓여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누리는 삶을 살아 가시길 바랍니다.

3. 성에 큰 기쁨이 있음 (There was great joy in that city)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부흥과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자 그곳에 큰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부흥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것과 같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영적인 중풍병자가 고침 받으며, 영적으로 못 걷던 사람들이 다시 걷게 되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고 계심으로 환난이 떠나가고, 기쁨과 축복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시 126:3).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주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소식

News Board

예 배

1. 7월 첫째주 새벽예배-일사:7월 3일(월)~8일(토) 새벽 5시(토요일은 새벽 6시) / 장소:대성전(토요일은 예루살렘성전)
설교:권일두 목사(3일~5일), 윤광현 목사(6일~7일), 변원중 목사(8일)
2. 순복음성교연합회 직장선교회 제37회 초교파 전국 직장인 및 청장년·일반성도 초청 금식대성회
일사:7월 11일(화)~14일(금) / 장소:기도원 대성전 / 설교:이영훈 목사 외 / 문의 ☎ 02-783-5083
3. 남선교회 7월 헌신예배-일사:7월 12일(수) 오후 7시 30분 / 장소:예루살렘성전 / 설교:박성민 목사

모 집

1. 국제신학연구원 순복음기도학교 세미나 2023년 3학기 참가자 모집
일사:7월 5일(수)~9월 27일(수)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장소:예루살렘성전 / 문의 ☎ 02-6181-5228
2. 순복음성교연합회 사회사업미용선교회 제25회 연합결혼식 참가자 모집
대상: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가정, 재혼하는 가정, 다문화 가정, 북한동포 가정 등 / 문의 ☎ 02-6181-6860

안 내

1.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베들레헴성전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새가족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으로 등록 및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 대성전 지하3층은 새가족 전용 주차장이므로 많은 활용 바랍니다.)
2. 장로회 제20회 장로수련회
일사:8월 31일(목)~9월 1일(금) / 장소:그랜드 하얏트호텔(인천 영종도) / 설교:이영훈 목사 외
3. '신앙계' 7월호가 나왔습니다. 구독하신 후 성경공부 및 전도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신천지 추수꾼 및 이단인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 ◆여의도순복음교회는 교회 내 각종 판매행위(다단계 등) 또는 성도 간 투자권유 및 금전거래를 금지합니다.

▣ 다음 주간(7/9, 7/12, 7/14, 7/15) 대표기도(장로)

구 분	1부	2부	3부	4부	5부 대학청년	주일저녁
주일예배(7/9)	오세영	권오현	임임택	김명철	서한식	이유세
수요예배(7/12)	김석인	이기석	금요성령대망회(7/14)	이현재A	토요예배(7/15)	이광희

▣ 교회 대표전화 (주간) ☎ 02-6181-9191, (야간) ☎ 02-6181-9000~3

▣ 의례팀(장례 상담 및 조화 신청 시간 07:00~20:00) ☎ 02-6181-6533

감사의 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악명 높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 박사의 체험담입니다. 그는 강제수용소에 갇힌 3년 동안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관찰하여 기록했습니다. 이 책에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 환경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말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은총에도 고마워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이를 잡을 시간을 준다는 것도 반가운 일이었다. 물론 이를 잡는 일 자체는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 이를 잡으려면 천장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린 추운 막사에서 옷을 벗고 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를 잡는 도중 공습경보가 울리지 않아 전등불이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만약 이 시간에 이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하룻밤의 절반을 꼬박 깨어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언제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사소한 일에 감사하고 작은 행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극심한 고난을 이기고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좌절과 포기 대신 절망 중에 감사를 선택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한 결과입니다.

시련은 언제든 우리 인생에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같은 환경에도 삶과 죽음이 나뉘진 아우슈비츠 수용소처럼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상황에도 절망이 아닌 감사를 선택하여 감사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